

보성군, 30년 만 인구 ‘순유입’…지방소멸 파고 넘는다

11월 전입 90명 ↑…1995년 이후 처음
출산을 도내 8위 3년 연속 출생아 증가
출산수당·청년 정착 등 ‘3박자 행정’ 주요

보성군이 30년 만에 인구 순유입을 달성하며 그동안 추진해 온 사람 중심의 인구 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보성군의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90여명 많은 ‘순전입(순유입)’ 상태로 전환됐다.

이는 지난 1995년 이후 무려 30년 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으로 군은 지난 2023년 127명, 2024년 88명으로 순유출(인구 감소) 폭을 꾸준히 줄여왔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적 이동뿐만 아니라 자연 증감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성군이 30년 만의 ‘인구 순유입’ 전환을 달성하며 인구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 어린이날 행사에 지역 아동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모습. <보성군 제공>

전국적인 초저출산 기조 속에서도 보성군의 출생아 수는 ‘나 홀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2년 81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3년 103명, 202

4년 110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2022년 0.79명에서 2023년 1.09명, 2024년 1.20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2024년 기준 전국 17위, 전남 도내 8위를 기록하는 기업을 토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를 또한 2023년 2%대에서 2025년에는 1% 초반대까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성과는 민선 8기 들어 인구 위기 극복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직 개편과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군은 지난 2023년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올해는 청년활력팀을 설치하는 등 전담 조직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출산장려금 및 양육 지원 확대 ▲2025년 출생기초수당 신설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신생아 출산 축하 물품 지급 등 임신부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일자리 정책’도 한몫했다. 청년커뮤니티 활동 지원과 창업 프로젝트, 가업 승계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동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밖에 군은 ▲지역 인재 발굴 플랫폼 ‘보성 두드림 스테이’ ▲스타기업 육성 엔진 ‘보성새책 키움터’ ▲빈집 활용 주거 플랫폼 ‘보성 마을 집사’ 등 관광·문화·청년 활동을 연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해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누구나 머물고 싶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보성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장성군 촌촌 의료망 군민 건강 지킴이 ‘톡톡’

감염병 관리·모자 보건 등 잇따라 수상
농촌왕진버스·병원 동행 등 서비스 호평

장성군이 감염병 예방부터 모자 보건, 의료 접근성 강화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의료 복지 정책을 펼치며 ‘군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보건 행정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가장 돋보이는 분야는 ‘감염병 예방 관리’다. 군은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감염병 확산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휴대용 방역 장비 무상 대여, 임신부 배

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을 펼친 결과, 올해 ‘감염병 관리사업 평가’에서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스마트위치와 체중계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전문가들이 임신부의 건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맘케어 비대면 건강관리 체계’를 도입했으며, 출산 전 필라테스·임신·출산교실과 임신부를 위한 비대면 우울 관리 시스템 운영하는 등 여성 특화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군은 ‘2025 전남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 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도 호평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 총 4회에 걸쳐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해 평소 병원 방문이 어려운 주민 2천여명에게 양방 진료와 시력 검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차량과 동행 인력을 지원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해 의료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촌촌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군민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장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담양군은 최근 수북초등학교 4학년 학생 12명과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클린존(Clean Zone) 캠페인’을 전개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수북초, 불법광고물 근절 ‘클린존’ 앞장

‘LED 전광판’ 활용…안전 교육 병행

담양군의 초등학생들이 학교 주변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고사리손을 보냈다.

7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수북초등학교와 함께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클린존(Clean Zone)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행정과 학교가 협력해 안전 문화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

북초 4학년 학생 12명이 참여해 학교 주변을 점검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특히 현장에선 “불법 광고물을 없애자고 하면서 또 현수막 쓰라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한 학생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회용 현수막 대신 휴대용 LED 전광판을 활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친환경’ 아이디어도 돋보였다.

이와함께 군은 담양소방서와 협력해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 방법을 교육해 학생들이 일상 속 안전 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캠페인 후 학생들은 수북면사무소를 방문해 정성미 면장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사회 수업 시간에 토론했던 지역 문제에 대해 건의하는 등 풀뿌리 자치를 체험하기도 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 및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이 주도하는 ‘참여형 안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 기자

순천시, 남해안권 스마트 허브 도시 도약 잔결음

‘강소형 스마트도시’ 선정…80억 확보

순천시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남해안권 스마트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전남 동부권 최초로 선정돼 국비 8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기후위기와 지역 소멸 등 급변하

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 도시 특성에 맞는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순천시는 ‘기후위기 대응형’ 분야 선정으로 오는 2026년부터 3년간 국비 8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시민 체감 서비스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스마트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서비스 ▲AI 기반 스마트태·안전 서비스 등 4개 분야다.

특히 자전거 이용, 재활용 등 시민의 친환경

행동을 데이터화해 통합 리워드로 환산하는 탄소 감축 리워드 서비스와 이동형 캐리밴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테스트베드 등 시민참여형 리빙랩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개선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활용한 고정밀 버스 정보 서비스를 구축해 실시간 버스 위치의 오차 범위를 줄이는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순천의 강점인 생태 자원(블루·그린 인프라)과 첨단 스마트 기술을 융합,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순천=정기 기자



곡성농협, 연말 ‘쌀 먹거리’ 소비 캠페인

첨가물 無 100% 친환경 쌀 제작

농협곡성군지부는 7일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시향가(대표 양숙희)와 함께 ‘연말 송년 모임은 쌀 먹거리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잦은 모임이 예상되는 연말을 맞아 지역 특산주를 홍보하고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은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www.gokseongmall.com)에서 시향가 쌀 먹거리를 주문하는 선착순 고객 100명에게 먹거리의 주재료인 삼기면

근초마를 유기농 햅쌀 20kg(2인분)을 증정한다.

시향가 쌀 먹거리는 곡성군 삼기면 근초마을에서 재배된 100% 유기농 쌀을 원료로 빗은 프리미엄 전통주다. 특히 인공 감미료나 첨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연 발효 방식으로 제조해 깊은 풍미와 깔끔한 맛을 자랑한다.

방현용 농협곡성군지부장은 “농부의 땀과 정성이 가득 담긴 건강한 쌀 먹거리와 함께 따뜻하고 의미 있는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쌀과 전통주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철 기자

여수시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토대 마련”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통과

여수국가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6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포함해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 산자위 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법안에는 ▲세제·재정·금융 지원과 규제 특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우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 훈련 ▲고용 불안 완화 및 근로자 보호 대책 등 업계의 승리를 이뤄줄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주목할 점은 규제 완화로 기업이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다 석유화학 사업자와 공동 행위를 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포함돼 기업 간 협력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전기요금 감면과 천연가스 직수입 특례 조항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여수=김진선 기자

고흥군, 광주·전라권 ‘우주항공 비즈 페스타’ 개최

고흥군이 수도권에 이어 광주·전라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투자 유치에 나선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10월 광주 힐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2025 고흥 우주항공산업 비즈 페스타(광주·전라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열린 비즈 페스타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은 후속 프로그램으로, 광주·전라권 소재 우주항공 및 드론 관련

기업, 연구·투자 기관,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우주항공 산업발전협의회 신임 위원장 위촉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이뤄진다. 이어 전남도와 고흥군이 우주항공 및 도합항공교통(UAM) 산업 투자 제안 발표를 통해 지역의 투자 매력을 알린다. /주성학 기자